



12월 돈가는 1,900~2,000원/kg으로 전망



최동수 부장
(C푸드시스템(주) 상품영업팀)

1. 11월 돈가

8월부터 10월까지의 서울 평균 돈가 추이를 보면 8월(2,417원), 9월(1,956원), 10월(1,637원)에서 11월 9일부터는 10월 평균 돈가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11월17일 2,302원/kg기록하였다.

10월 돈가가 년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유난히 길었던 여름으로 인해 돼지 증체에 장기간 소요되었고, 3월 구제역 발병이후 지속된 고돈가로 사육두수 감소없이 유지된 두수가 9월부터 적정 기온이 유지되어 급격한 증체가 이루어져 대량물량이 10월에 출하되었기 때문이다. 11월 돈가가 상승한 이유는 돈육 소비 증가 보다는 10월부터 시행한 민간 수매 비축 사업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월 4일까지 비축사업이 지속될 것이고,

각 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축해야 하는 점과 10월에 과체중 돼지의 도축이 완료되면서 11월 정상적인 규격돈이 출하되어 10월보다 상대적 출하량 감소된 점, 국내 체화 후지를 일부업체가 비축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돈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본다.

2. 12월 돈가 전망

지역별로는 다소 상이하나 12월 출하 대기 물량이 과도하지는 않으나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12월 4일 민간 수매 비축 사업이 종결되면 도매시장으로 출하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돈가는 11월보다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돈가는 1,900~2,000원/kg 전망되나 12월 상순은 높고 중순부터는 낮은 돈가가

유지될 것이다.

3. 2001년 상반기 돈가

모든 사료 생산량 및 모돈두수 기준시 2001년 상반기는 2000년 상반기보다 저돈가가 예상된다. 양돈 생산비 이상인 2,400원/kg은 2/4분기부터 예상되나 가장 큰 변수는 10월~11월 민간 비축분이 2001년 4월부터 방출되어 국내 부위육 가격 상승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고 2000년 4월~6월 정부 비축분인 13,000여톤이 2001년 1월~3월 방출시에도 돈가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1년 상반기 평균 돈가는 2,400원/kg 수준으로 예상된다.

4. 2001년 돈육 수입 전망

한국으로의 주 수출국인 유럽의 부위육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러시아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통상적인 동절기의 부위육 가격 하락 추세가 금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6개월간의 국내산 부위육 시세를 감안할 때 삼겹 및 목살이외의 수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국내 수입육 유통업체들도 과거와 같이 대량 물량 계약은 전무한 상태이고 일부 물량만을 계약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에 수입되는 물량은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최근 국내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육류 소비 감소가 나타나 수입육 유통업체들이 국제시장을 관망하는 상태이다.

5. 2001년 국내 양돈 농가가 준비해야 할 사항

첫째, 2001년 3월~4월에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제역이 재발된다면 국내 양돈뿐만 아니라 육가공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둘째, 국내 돈가 등·폭락에 관계없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향후 국내돈가는 등·폭락폭이 적어지게 되어 과거와 같이 폭등시의 큰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진다.

따라서 농가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내 양돈의 생존 전략이다.

셋째, 2002년 일본으로 돈육 수출을 위해 2001년 하반기부터는 규격돈 생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출 중단을 계기로 한국산 돈육의 품질이 다른 수출국의 돈육보다 우위에 있음을 검증되었다. 가공 부문에서 추가적인 기술보완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원료돈이 우수하지 못하면 등·안심 및 후지 수출은 어렵기 때문이다. **양돈**